

대내외 제주도민의 결속을 위한 전략구상

강 영 훈*

▶ 발표에 앞서

1) 오늘의 발표내용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에서 1999년 10월에 수행한 정책보고서 「100만 제주인 일체성확립과 역량구대화 방안연구(Establishing Identities and Developing Potential Abilities for One Million Chejuians)」 중에서 발표자가 담당했던 '국내지역(제주도 제외) 및 해외지역 제주인 역량강화 방안'부분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어느 교포와의 간절한 통화 내용

"귀 연구소의 조사에 도움이 될까하여 일부러 전화를 하고 있다. 간단히 요점을 이야기한다면 설문지에 대한 교민들의 협조가 매우 미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 한다. 이유는 첫째, 설문지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데 현지 교민들의 대부분이 한글을 모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재 교민사회에서 제주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또 무슨 의도로 조사를 하고 야단법석을 떠는지 하며... 대부분은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다. 일전에 제주도내 모 일간지가 동일한 설문조사를 시도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의 회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도당국에 대한 교민사회의 불신은 컨벤션센터 문제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민들의 마음이 의욕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포들을 맞이하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자세이다. 우리는 이곳 일본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받고 고향에서 위안을 얻으려 해왔다. 그러나 막상 제주를 방문하면 우리에게 이것 저것 많을 것을 요구하고는 금방 외면을 한다. 우리가 고향을 찾을 때 기대하는 것은 따뜻한 환대이며 인간적인 교감이다. 투자와 회사만이 당국이나 제주사회의 관심사라는 생각이 들 때 일본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허탈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여름 하계향토학교에 참가하러 왔을 때 12명의 인사가 공항에 나와 환대를 했다. 그럼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만 공항에 나왔다. 시종일관 치 못한 이런 자그만 행동들이 교민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그러나 나는 영원히 제주인이고 조금이나마 미력을 바쳐 제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들을 보다 따뜻이 반겨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민선 2기 도정은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영원한 제주인, 다함께, 그리고 미래로"라는 재외도민정책 3대 기본방침 아래 재외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외도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 중이나 100만 제주도민의 결속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지역과 해외지역의 경우 기본인프라구축과 사교의 전환없이 백만제주인 결속이라는 전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본론에 앞서 지적해 놓으며,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발표하고자 한다.

- ▶ 1) 백만 제주인 결속을 위한 제주도당국의 시책에는 문제점은 없는가?
- ▶ 2) 재외제주도민의 도민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설문조사 결과)?
- ▶ 3) 대내외 제주도민의 결속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1. 백만제주인 결속을 위한 당국의 시책에 문제점은 없는가?

1) 일반시책과 특수시책

제주도에서 재외 해외도민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반시책으로는 고향방문사업, 유골봉환사업, 출향잡수 고향방문사업, 고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youngwoo@cheju.cheju.ac.kr)

향발전기여사 정리, 초청사업, 인정감 및 사기진작 부여사업, 상담실 운영, 청소년 교류사업, 정기총회, 신·망년회 등에 현지 방문 격려사업 등이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제주출신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화, 서울제주회관 건립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점

상기의 시책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었다.

①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표 1〉 재외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 개요

사업	재일 제주도민회			재미 제주도민회			재캐나다 제주도민회			국내		
	대상	내용	주최	대상	내용	주최	대상	내용	주최	대상	내용	주최
1. 고향방문사업	0	1세	제주도									
2. 유골봉환사업	0	전쟁희생	제주도									
3. 출향집수 고향 방문사업										0	1세	제주도
4. 고향발전사기여정리	0	1세	제주도	0	1세	제주도	0	1세	제주도		1세	
5. 재외도민초청사업	0	1세	"	0	1세	"	0	1세	"	0	1세	"
6. 인정감 및 사기진작	0	1세	"	0	1세	"	0	1세	"	0	1세	"
7. 재외도민상담실운영	0	1세	"	0	1세	"	0	1세	"	0	1세	"
8. 청소년교류사업	0	2-3세	"	0	2-3세	"	0	2-3세	"	0	2-3세	"
9. 우수인력DB화	0	1세	"	0	1세	"		1세	"	0	1세	"
10. 서울제주회관 건립										0		"

〈표 1〉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업은 주로 재일 제주도민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출신 재외교민들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재미 제주도민회와 재캐나다 제주도민회를 대상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해외 제주도민 1세를 위한 사업이며 2-3세를 위한 사업이 부족하다. 교민 2세와 3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의 사업에 재외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는 사업결정에 앞서 설문조사, 간담회,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재외도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민들과의 공동사업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연락방안은 구축되었는가?

제주도가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 및 연락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본다. 특히 해외 제주도민의 이사를 할 경우 신속히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일부 교민들의 경우 개인정보 누출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북미의 경우 시차의 문제 때문에 당사자와 손쉽게 연락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외국어구사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외도민회 뿐만 아니라 개별 교민들과도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 연락 매카니즘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의 문제와 직결된다.

③ 사업집행이 형식성에 흐르는 경우는 없는가?

행사실적과 외형만을 의식하고 행사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은 오히려 참가자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며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는 커녕 후유증만을 남긴다. 각종 초청사업의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감귤축제 때 재일교포들을 초청했으나 그들을 외면한 행사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나중에 지적하는 것처럼 하계향토학교 운영을 여러기관이 주관함으로써 서로 책임을 미루어 뒷마무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④ 특수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재외제주도민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는 제주출신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화 및 네트워크화작업과 서울제주회관 건립이 있다. 그러나 재외도민 우수인력에 대한 DB화 구축 및 활용 방안이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서울제주회관 역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결여된 상태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특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재외도민 문제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협의회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6년 10월 4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12개 도민회장(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서부경남, 울산, 재일본, 관

서, 재미)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 제주도민회 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러나 재외 제주도민의 총 결집체인 「재외제주도민회 협의회」는 현재까지 사무실도 없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있다. 연구자가 1999년 10월 10일(일요일)과 10월 11일(월요일) 양일에 걸쳐 직접 도민협의회 임원들에게 전화로 도민협의회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1) 도민회의 사무실이 없어서 서울도민회회관을 임시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 2) 각 지역별로 순번제로 도민협의회 회장직을 맡게되어 있어서 책임의식이 약하다는 것, 3) 협의회회원 상호간에 연락 및 접촉이 쉽지 않고 빈번한 이사로 주소파악에 애로가 있다는 것, 4) 제주도 당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의 결여, 5) 거리상의 이유로 미주지역 도민회와의 접촉에 특히 애로를 느낀다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⑥ 재외도민들이 자부심과 신뢰성을 갖고 투자할 아이디어(사업)는 마련되어 있는가?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신뢰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외 제주도민들의 건의사항과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⑦ 사업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은 즉흥적인 결정을 삼가고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교류사업 중 하계향토학교의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 IMF의 영향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격년제 실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교통비 지원여부가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⑧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외 제주도민들의 애로사항과 제주도정에 바라는 건의사항, 각종 사업에 대한 반응과 성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환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설문지 조사나 정기적 회합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2. 재외 제주도민의 도민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설문조사 결과)

재외 제주도민들로부터 직접 도민회운영 실태와 도당국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도민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율이 생각보다 저조하였다.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본지역의 경우 어느 교포가 지적하였듯이 설문지 구성에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글을 사용한 것이 저조한 회수율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작성하여 반송우표를 동봉한 우편을 이용함. 전화와 팩스를 동시에 활용함.

○ 조사기간 : 1999년 9월 1일~1999년 11월 31일 (3개월)

○ 조사대상 : 국내 13개 도민회와 해외 11개 도민회의 모든 임원

설문지는 1999년 9월에 1차로 발송되었으나 회수율이 저조하여 1999년 10월 7일에 2차로 해외지역(일본, 미국, 캐나다)만을 대상으로 약간의 상황설명과 함께 재발송하였다.

〈표 2〉 재외 도민회 대상 설문지 발송 내역

구분	재일도민회	미주도민회	캐나다도민회	국내도민회
1차발송(99.9.1)	200부	25부	20부	450부
2차발송(99.10.7)	250부	27부	25부	
전화(99.10.11~)	재외제주도민회 협의회 부회장(2명)	재외제주도민회 협의회 부회장(2명)		재외제주도민회 협의회 임원(13명)
전화(99.10.18~)				13개 국내도민회 임원(각 3명씩)

○ 회 수 율 : 총 24통의 설문지(미국 6, 일본 5, 캐나다 2, 국내 11)를 회수하였다.

○ 전화면접에 의한 보완 조치 : 「재외 제주도민회 협의회」 임원 17명(일본 2, 미국 1, 국내 13)에 대한 전화면접을 실시하였으며, 13개 국내 도민회에 대해서도 각 3명씩 3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전화면접의 내용은 설문지 내용과 동일하였다.

1) 도민회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분석

〈표 3〉 재외도민회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설문조사)

	국내 지역 도민회	해외 지역 도민회
도민회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만 집중되어 있는 재외도민관리방식을 탈피하여 국내 지역에도 관심 요망 ·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관심을 보일 것. · 재외도민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효과적인 홍보체계 구축 · 지도급인사들의 협력으로 도민회 운영을 철저히 감독할 것. · 도민회 임원들의 자질 제고 · 제주도당국과 도민회 임원들과 간담회 및 의견수렴 요망 · 편지, 전화 등을 통한 정신적 격려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회의 단합과 화합 요망(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로서의 도민회 존재 필요) · 도민회와 제주도 당국간의 체계적 연락관계 수립(간담회 개최, 초청 방문 등 필요) · 당국의 홍보부족과 재외도민들의 정보부족 문제 해결 · 정신적 격려 요망 · 당국의 해외 도민회에 대한 이해부족 → 교민행정업무의 일원화 필요성 · 개인 혹은 기업의 입장이 도민회의 이름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도민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결과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우선 국내지역 도민회의 경우, 자체적인 문제로서 도민회의 내부적인 분열과 임원들의 자질 결여를 지적하였고, 또한 저조한 회비징수와 재정난을 호소하였다. 도 당국에 대해서는 첫째로, 효과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둘째로, 도민회와 도당국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재외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지역이나 대도시의 도민회 외에 중소도시의 도민회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외지역 도민회의 경우도 국내지역 도민회와 유사한 답변을 하였는데, 자체적인 문제로서 도민회의 단합에 이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도민회가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될 것을 여러 사람이 희망하였다. 도 당국에 대해서도 국내지역 도민회와 마찬가지로 첫째, 홍보부족의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둘째, 도민회와 제주도 당국간에 보다 긴밀한 연락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망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교민행정업무를 일원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할 만 한 것은 국내지역이나 해외지역 모두 제주도민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바란다고 응답을 한 사실이었다.

2) 기타 건의 사항

〈표 4〉 재외도민회의 기타 건의 사항

	국내 지역 제주도민회	해외 지역 제주도민회
기타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두뇌 활용 · 도당국의 실무자들(관광, 축산, 파수 등)의 교육훈련강화 · 컨벤션 센터 설립 문제 해결 · 재외 도민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행사 추진 · 북제주·남제주간에 행사의 중복을 피할 것 · 항공기 증편 · 2·3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초청방문 계획을 2·3세대들에게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정책의 추진 · 제주출신 유학생이 제주도 돌아갔을 때 High Quality Job 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행사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참여. · 제주도의 우수상품을 미국, 일본 이외의 지역에도 수출하는 정책 고려 · 해외교포 2세대들과 고향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해외교포 2·3세대의 제주내 대학 유학 추진 · 동경과 오오사카 도청에 홍보사무소 설치

기타의 건의사항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국내지역 도민회의 경우는 항공기 증편, 도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두뇌활용, 도당국 실무자들의 교육훈련 강화 요망 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해외지역 도민회의 경우 동경과 오오사카에 홍보사무소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응답이 있었고, 제주출신 유학생들이 귀향했을 때 적절한 직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가 2세와 3세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강렬한 심정을 피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사의 중복을 피하라는 지적도 유념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3. 대내외 제주도민의 결속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재외 제주도민을 상대로 하는 제주도의 일반사업과 특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전략을 모색해 볼 차례이다. 전략의 기본적인 전제는 <표 5>와 같다.

<표 5> 재외 제주도민을 위한 전략의 기본구조

사업	사업내용	향후 보완사업계획	
현재 진행중인 사업	1. 고향방문사업	대상지역확대 및 연령제한 완화, 홍보강화	정 기 적 인 평 가 및 환 류
	2. 유골봉환사업	홍보활동강화 및 해외 전도민으로의 확산가능성 점검	
	3. 출항잠수고향방문사업	현행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필요	
	4. 고향발전사기여정리	미주지역으로의 확대방안 강구	
	5. 재외도민초청사업	내외도민과 함께하는 체험의 장 강구, 미주지역홍보	
	6. 인정감 및 사기진작	명예도민증발급과 동기부여책 강구	
	7. 재외도민상담실운영	소외지역에 대한 홍보 및 대상지역확대	
	8. 청소년교류사업	펀드마련, 미주지역으로의 확대, 대학과의 연계방안	
	9. 우수인력DB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기술센터 설립	
	10. 서울제주회관 건립	국제학원으로의 승격문제검토	
뉴밀레니엄사업		1. Global Cheju Cyber Center (글로벌 제주 사이버 센터)	인 평 가 및 환 류
		2. Cheju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제주국제교육센터)	
		3. Information and Culture Center for Abroad Chejuians (제주교민 정보문화센터)	
		4. Experimental Tour courses(체험관광 코스개발)	
		5. Honorary Cheju Citizenship(명예도민증 발급 확대)	
기 본 인 프 라 구 축			
	1. 도정신문의 영문화·일문화 작업		환 류
	2. 도지사와의 직통전화 개설		
	3.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창구수령 개설·홍보화 전략		
	4. 화상회의 구축		
	5. 도정홈페이지의 영문·일문화 작업		
	6. 제주도민협의회 활성화방안 마련		
	7. 예산확보 및 펀드마련		
	8. 제주행(연결)노선확대 및 특별기취항 협력체제 강화		

1) 기본 인프라의 재구축

① 도정신문의 영문화·일문화 작업

제주도에서는 1달에 2회 정기적으로 도정신문을 발간하여 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국문만으로 되어 있어 제2세나 3세 재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도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도정신문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영문 또는 일문화하여 해외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단 교민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지구촌 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제주도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② 도지사와의 직통전화 개설

재외제주도민의 고충과 건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hotline을 개설하여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도정홈페이지 영문화·일문화 작업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정 홈페이지의 영문화·일문화 작업은 재외 도민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제주도정의 기본정책 방향과도 부합되는 사업이다.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정 홈페이지가 단순히 한국어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메일을 이용한 재외도민 의견창구를 개설하여 도정 일반이나 재외 재외도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조언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④ 전자화상회의 장 구축

현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외도민과의 접촉 방식은 신년에 도지사내외가 직접 도민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전자화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의 화상회의장과 각 도민회, 도의 화상회의장과 신년하례식장을 연결하고 필요시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⑤ 제주도민협의회 활성화

국내의 13개 도민회와 해외의 11개 도민회를 총괄하고 있는 도민협의회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도민협의회장에 대한 직·간접선거제를 도입하고, 협의회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며, 연락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조직개혁과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⑥ 예산확보 및 편비축

현재 제주도가 재외 제주도민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재일동포고향방문사업, 재외도민초청사업, 재외도민 인정감 및 사기진작 부여 사업, 재외도민 상담실 운영은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 교류사업 중 향토해계학교의 경우에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난관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제주도가 각종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의 문제에 봉착한다면 제주도와 재외 제주도민단체가 공동편드를 마련하여 사업의 질적·양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⑦ 제주항공연결노선의 확대 및 특별기 취항 협력체제의 강화

모든 교류활성화의 첫걸음은 교통편의의 확보에서부터 비롯한다. 정부 및 항공사와 협상을 통하여 항공기운항을 증편하거나 노선을 신설하는 등 보다 용이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문제 역시 교민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2)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

㉠ 고향방문사업은 일본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호응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므로 연령도 60세까지 낮추어 미주 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 유골봉환사업의 경우,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전도민을 대상으로 사업확산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출향잠수 고향방문사업의 경우에는 제주도정에서 주요현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현행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 고향발전사 기여정리사업도 일본에서만 실시할 예정인 범보고회를 미주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재외도민 초청사업도 단지 초청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정감 및 사기진작대책도 명예도민증제도를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 재외도민상담실운영의 경우 이를 대도시지역에만 한정하지 말 것이며 또한 미주지역으로의 확대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편드마련이 급선무이며, 또한 이 사업을 미주지역으로의 확대하여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우수인력의 DB를 통한 활용방안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기술센터 설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을 도정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 서울제주회관은 탐라국제학원으로 이름과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뉴밀레니엄 사업

① Global Cheju Cyber Center 설치

현재 제주도가 조사한 우수인력의 수를 보면, 도내 411명, 국내 565명, 국외 50명으로 이미 상당한 숫자의 고급인력이 배출되어 있다. 이들 인재집단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이들 상호간, 혹은 도당국과 이들간의 결속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연후에 이들 우수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정자문의 역할을 의뢰하고 각종 도정 시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며 제주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출신 해외인력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i) 우수인력 DB화 구축(국가별, 지역별, 능력별, 성별 등)
- ii) 사이버제주기술위원회 조직
- iii) 세계제주도민 네트워크 공동체 설립(〈참조〉 세계한민족 네트워크공동체 (Global Korean Community)홈페이지 참고(<http://okf.org>))
- iv) 도정자문 위촉 및 공동프로젝트 실시
- v) 홈페이지운영 및 DB 관리는 대학 또는 연구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Cheju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설치

제주도는 현재 서울에 건설중인 서울제주회관(가칭)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숙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입국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을 거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회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재외 제주도민의 숙박과 연락, 더 나아가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종합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룸도 제주국제교육센터로 변경함이 제주인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본다.

③ Cheju Information and Culture Center for Abroad Chejuians (제주교민정보문화센터)설립

일반 재외 교민들이 제주도 당국과 혹은 교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민회운영이나 교민정책 수행과정에 가장 큰 예로요인으로 지적되는 주소변동문제나 긴급공지 사안들은 교민정보문화센터를 통해서 손쉽게 해결가능하다. 센터는 일반 교민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기의 우수인력 연구센터와는 또 다른 구심점을 제공할 것이다. 재외도민 상담실을 정보문화센터로의 승격하는 방안과 새롭게 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Experimental Tour Courses(체험관광코스)조성 및 개발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체험관광코스의 개발은 제2세 및 3세 재외도민들에게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이들의 고향의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민속촌이나 농가를 활용하여 제주도민의 전통적인 의식주생활을 재현시키고 일정시간을 이곳에서 체류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⑤ Honorary Cheju Citizenship(명예도민증 발급 확대)

제주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해외 제주도민에 대한 명예시민증 발급행사를 확대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대우를 강화한다(예를 들어 각종 홍보물 특별 발송 등). 또한 제주도의 발전에 공이 큰 외국인들에게도 명예도민증을 발급하여 영문화된 각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민의 결속을 위한 전략구상의 접근방법을 도당국의 시책에 대한 분석, 국내·해외지역 제주도민에 대한 설문결과분석을 통하여 대내외 제주도민의 결속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지금까지의 불신에서의 상호 신뢰, 제주도(민)와 국내·해외지역간에는 공간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Network 구축과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제주인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본인프라와 feedback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